

# Essay 이런 나무 저런 나무

전 영 우

〈 국민대학 교수 · 본회회원 〉



생명의 신비가 오묘하게 펼쳐지고 있는 숲으로 여행을 함께 떠나보자.

수풀이 줄어서 된 말인 숲은 문자 그대로 나무와 풀이 무성한 곳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나무나 풀이 자라는 모태인 토양, 그 속을 흐르는 시냇물 그 속에 살고 있는 동식물과 미생물들을 포괄하는 개념을 숲이라고 전문가들은 정의한다. 숲을 떠받치고 있는 토양 30g 속에 700억 마리의 세균, 100만 마리의 원생동물, 100만 마리의 선충 등 수많은 곤충의 유충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과연 숲이 신비의 생태계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숲을 이루고 있는 식구들 중 나무라는 식물만 해도 신비로운 사실이 적잖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생명체, 가장 부피가 큰 생명체, 가장 키가 큰 생명체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숲을 이루고 있는 가족들 중에 중요한 구성원인 나무이다. 우리의 단군 조상이 하늘을 열며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을 때, 이미 우리 땅을 지그시 바라보았을 5천여 년의 나이를 가진 브리스틀 콘 파인이라는 소나무가 미국 네바다 주의 산기슭에 자라고 있는 것이다. 추위에도, 가뭄에도, 더위

에도, 또 그밖에 겪었을 엄청난 환경 변화에도 꿈쩍하지 않고 처음 뿌리를 박았던 한 자리에서 묵묵히 5천여 년을 지켜온 나무라는 생명체를 생각하면 생명이란 참으로 신비한 것임을 다시금 되새기게 된다.

부피가 가장 큰 생명체는 캘리포니아의 산록에 살고 있는 자이언트 세쿼이아라는 나무이다. 얼마나 큰지 이 나무 한 그루로 방 5개짜리 목조 가옥 80채를 지을 수 있고, 그 무게는 6천 톤이나 된다고 하니 상상하기가 쉽지 않다. 마찬가지로 키가 가장 큰 생명체도 세쿼이아이니, 그 키가 111.2m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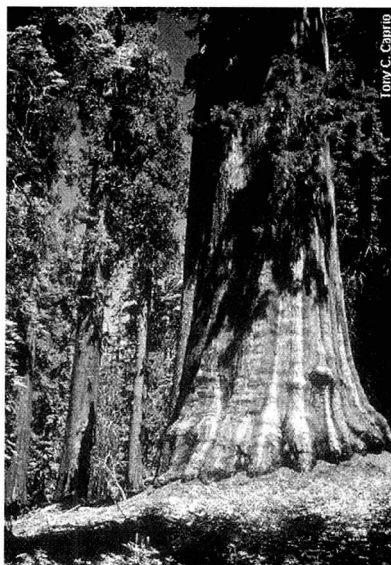
우리나라에는 이처럼 거대한 나무는 없지만, 대신 1천여 종이나 되는 다양한 나무가 살고 있다. 이렇게 많은 종류의 나무들이 자랄 수 있게 된 것은 기후 변화가 심하고, 지형이 복잡하며, 빙하기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 숲을 이루는 나무들 중에 으뜸인 나무는 소나무라고 할 수 있다. 남한의 산림면적이 국토면적의 65%인데 이 중 42%가 소나무가 주인으로서 숲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소나무가 우리 숲에 많은 이유는 조선시대에 엄격하게 시행해왔던 소나무 보호정책인 송금정책 때문이

라고 할 수 있다. 소나무는 우리 선조들의 일상에 필요한 농구·가구·식생활용품 등으로 사용하였고, 마지막으로 관재로까지 사용하여 황천길을 순조롭게 가도록 하였다. 이렇게 소나무에 의존한 생활형태 때문에 우리의 문화를 나무와 관련지어 '소나무에서 나고, 소나무 속에서 살다가, 소나무에서 죽는다'는 소나무 문화로 특징지을 수도 있다.



아마 이러한 독특한 문화 때문에 우리 선조들은 이 지구상에서 유래가 없는 일을 했는지도 모른다. 유래가 없는 일이란, 소나무한테 재산을 남겨준 일과 벼슬을 내린 일이다. 경북 예천의 석송령이라는 소나무는 종합토지세를 내고 있다. 자식 없는 농부가 죽으면서 동리에 있는 소나무한테 유산을 물려 주었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이 석송령 소나무가 살고 있는 예천면 천향리의 학생들은 이 나무로부터 장학금도 받고 있다.



Tony C. Caprio

◀ 자이언트세과이어

누구나 알고 있을 속리산 입구의 정이품송은 품계를 가진 소나무이다. 지금도 이 나무 한그루를 살리기 위해서 들이는 공은, 이 나무에 얽힌 사연을 모르는 외국인들이 잘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나무를 사람과 같이 인격이 있는 신령스러운 영물로 여겼다. 그와 같은 예는 부지기수로 찾을 수 있다. 강원도 원주에 있는 신림을 들먹거릴 필요도 없이 고향동네의 당산나무를 생각해보면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신처럼 모셨던 숲 이외에도 우리는 다양한 문화유산 덕분에 독특한 성격을 띠고 있는 여러 종류의 숲들도 찾을 수 있다. 물고기가 많이 모이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어부림, 후손의 번영이나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성황림, 강한 바람이나 파도로 부터 농경지나 마을을 보호할 목적으로 조성한 방풍림·방조림처럼 특수한 목적에 맞추어 만들어진 숲들도 있다. 더불어 우리 선조들은 여름을 나는 장소로 숲(수, 藪)을 갖기도 하였다. ≡